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박진우

스타일의 시작



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 옷장 위의 XG상들리에

박진우의 <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전신거울과 그 앞에 세워둔 마네킹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입니다. 전신거울과 마네킹은 독립적으로 세워졌지만, 마네킹 전체를 전신거울이 반사하면서 유기적인 작품이 됩니다. 이 설치 작품은 본인의 희망대로 스타일리스트가 된 고객의 사연을 반영하기 위해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하면 연상되는 마네킹과 전신거울을 동원해서 스타일리스트의 다면적인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아버지가 선물한 '99년 그랜저XG 3.1 덕분에 스타일리스트의 바쁜 일과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이 그 차의 내부에 무수한 의상과 소품을 담아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타일리스트로 성장할 때 옆에서 비서처럼 보조해준 차였던 만큼, 중고로 처분할 수 없을 만큼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객의 사연을 반영하기 위해 박진우는 <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다>가 조명이 켜질 때와 꺼질 때 각기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드러내도록 설계했습니다. 어떨 때는 스타일리스트의 도구로서 전신거울과 마네킹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고객이 탔던 차의 부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연자의 고백은 박진우가 만든 소장용 작품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옷장 위의 XG상들리에>는 작가의 대표작을 고객의 사연에 맞게 변형시킨 작품입니다. 얼핏 현대적인 조명 장식품처럼 보이지만, 기존 조명 전구 대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달아서 고객의 지난 추억을 환기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글 · 반이정



[brilliant memories] 작가 박진우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던 저는 현재 5년 차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밤늦게 다니는 딸이 걱정되신 아버지가 은퇴 후 물려주셨지요. 고된 하루를 보내면서도 아버지가 앉았던 운전석에 앉으면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일은 늘어 지인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저 한 대로는 하루에 소화할 의상과 소품을 모두 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잘 댔으니 괜찮다고 하시지만, 과연 이 차를 처분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가 박진우



작가 인터뷰

고생하는 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아버지에 대한 딸의 고마운 마음이 낡은 그랜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스타일리스트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연자를 위해 그녀의 밝은 미래를 비춰줄 작품을 선물하고 싶네요.

프로필

제품, 그래픽, 공간, 순수 예술 등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종합적 시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박진우는 서울대학교 금속공예, 영국 왕립예술학교 제품디자인을 전공하였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디자인부문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ZD Lab 디자인 연구소의 디렉터이자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